

## *Antony and Cleopatra*: 대립과 갈등의 양상

송 일 상\*

### I.

*Antony and Cleopatra*는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주로 나타나고 있는 선과 악의 갈등양상이 비극적 갈등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양상 즉, 등장인물들의 로마적 가치와 이집트적 가치간의 대립과 갈등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Othello*와 *King Lear*의 주인공들인 Othello와 Lear는 이상적인 선을 대변하는 Desdemona, Cordellia라는 인물과 전형적인 악을 대변하는 Iago, Edmund라는 인물들 사이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영웅적 의지로 고통과 수난을 극복하고 자아인식에 도달한다. Macbeth 역시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I.i.10)라는 대사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선과 악이라는 양극단이 Macbeth라는 한 인물의 내면세계에 공존하면서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나 *Antony and Cleopatra*에서는 이러한 선과 악의 갈등양상이 나타나는 측면도 있지만, 이 극에서 보여주고 있는 로마적 가치와 이집트적 가치는 *Othello*와 *King Lear*의 선과 악의 개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주요 인물들인 Antony, Cleopatra, Octavius의 액션은 로마와 이집트 양세계에서 대단히 활기있고 생동감이 넘친다. 그러나 Antony와 Cleopatra라는 두 연인을 극적 중심에 있으므로해서 다분히 극의 혼선이 나타나는 측면도 있지만,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야기시키는 정치적 상황이 이 극을 다양하고 변화무쌍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Octavius Caesar에 의해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정치와 역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그는 공격적이고 타산적이며 술수와 책략을 사용하는 소위 Caesarism을 계승한 야심적이고 현실적인 군인 정치가로 부각되고 있다. Octavius는 극 전체를 통해서 전혀 감정의 노출이 없이 말과 행동은 항상 이성에 기초하면서 로마적 가치와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래서 Julius Caesar의 로마를 대제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역사적 사명감과 의지, Macbeth적인

---

\* 영어교육과 조교수

권력에의 야심을 공유한 로마인이다(Knight, 268). 또한 그는 스스로 운명을 결정해 나가지는 못하지만 로마의 정치적, 역사적 의지를 대변하는 전형적 인물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Octavius의 극적 역할은 그가 대변하는 로마세계의 가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Octavius는 그의 완고한 성격과 권력의 의지때문에 Antony와 Cleopatra를 패배시킨 냉철한 군인정치가로서 “모든 인물가운데에서 가장 혐오감을 주는 로마인(the most repellent Roman of them all)”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Markels, 43). 결과적으로 Octavius는 로마의 통일과 평화를 이룩한 이상적인 로마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마키아벨리적 현실정치를 실천한 야심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인물이다.

이러한 Octavius와 Antony 그리고 Cleopatra간의 가치관의 대립과 갈등은 사적인 세계와 공적인 세계, 혹은 로마와 이집트 사이에서 Cleopatra라는 인물만큼이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한다는 ‘시간’ 개념에 적용해 생각해 본다면, 주요인물들인 Antony, Cleopatra, Octavius에게 있어 시간은 각기 정치와 역사의 실체가 되고 있다. 시간이란 운명의 수레바퀴처럼 순환하지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끝없이 순환하는 시간의 추이는 예측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 역사, 정치를 창조하는 행운아는 현재의 행동이 합당하고 정당화 된다면 과거를 제압하고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다(Ide, 106-7). 과거의 로마적인 가치를 소유하고 있지만 현재의 이집트적인 가치에 몰두해 있는 연인 영웅인 Antony,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재를 책략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군인정치가이며 전쟁 영웅인 Octavius, 과연 이들 중에 누가 미래에 대한 역사적 비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 이들의 대립과 갈등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로마 역사의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적 가치와 기질을 상징하는 Octavius와 로마와 이집트적 가치의 양면을 공유한 Antony, 두 라이벌간의 가치관의 대조와 갈등의 양상을 파악하는 일은 Antony의 비극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 II.

로마의 권력구조를 실질적으로 양분하고 있는 Octavius와 Antony의 갈등은 그 세력을 급속하게 팽창해가는 Pompey의 도전으로 나타난다. Octavius는 우선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Antony에게 우선 화해

의 제스처를 보내고, 이어서 누이동생인 Octavia와의 결혼을 제의한다. Octavia는 전형적인 정숙한 로마 여성을 상징하는 Octavius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는 유일한 여성이다. 그야말로 외형적으로는 로마의 전쟁영웅과 로마의 여성을 대표하는 고귀한 여인과의 결혼은 국사중의 국사요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이 결혼에는 순수함이 없고, 정략적인 정치흥정이 깔려있다. Octavia를 정치게임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Octavius에게 삶은 곧, 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기누이를 이용하는데 대한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냉혹한 정치가이다. 반면에 Antony는 Octavius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조속히 회복하는 방법외에는 어떠한 이득도 없다고 판단하여 Octavia와의 결혼제안을 수용한다. 그러나 아이러니칼하게도 Antony는 이러한 화해와 협력이 필요치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Pompey의 위협을 받고있어 실제로 공격이 필요한 측은 다름 아닌 Octavius 진영이고, 또한 Pompey가 최근에 상당히 정중한 “호의(courtesies)”(II.ii.155)를 보여왔기 때문에 Antony 자신도 Pompey와의 대결을 분명히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Octavius와 Antony간의 협상에 대한 Octavius의 정확한 의도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극의 수수께끼의 일부분이라는 지적이 있지만(Adleman. 6), 이러한 Antony와 Octavia의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고찰해보면, Octavius는 Antony와의 이러한 만남을 사전에 세심하게 준비한 것이 분명하다. 그는 Antony의 동생과 그의 아내인 Fulvia의 반란에 대해서 냉정하게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면서도 최소한으로 비난하면서 자신의 사신에 대한 Antony의 부당한 처사만을 불평한다. 바로 이러한 갈등이 표면화 되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의 부관인 Agrippa는 Antony와 Octavia의 결혼을 제안하게 된다. 이러한 Agrippa의 결혼 제안은 자신의 부하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종, 통제하는 Octavius의 특성을 감안하면, 그와 사전에 협의, 승낙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결혼제의를 수용하는 Antony의 태도는 일종의 순진한 정치초년생처럼 보이며 그의 성격적 결함을 반영한다고 볼수도 있다(Bradley, 77). 그러나 이러한 Antony의 순진한 태도는 더욱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후일의 이득이나 특별한 혜택을 원치 않는 낙천적 기질의 전쟁영웅이 이집트적 가치에 몰입한 기질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Octavia와 Antony의 결혼제안의 과정을 보면, Octavius가 Antony에게 “우리들을 긴밀하게 맺어줄 어떤 테두리가 있다면 세계의 끝에서 끝까지 추구해서 찾아내겠소(if I knew/What hoop should hold us staunch from edge to edge/O'the world, I would pursue it)”(II.ii.114-16)라고 분위기를 진정시키자, Agrippa는

Octavius가 이와 같이 사전에 조성해 놓은 분위기를 이용하면서 결혼과 관련한 'binding'의 이미지리를 사용하여 결혼제의를 하게 된다.

To hold you in perpetual amity  
 To make you brothers, and to knit your hearts  
 With an unslipping knot, take Antony  
 Octavia to his wife. (II.ii.125-28)

Agrippa는 불안한 로마의 정치 상황하에서 군인정치가들인 Octavius와 Antony 간의 영원한 우의를 계속하고 형제의 의를 맺고 두 마음을 풀리지 않는 “매듭(knot)”으로 묶기 위해서는 Octavia와 Antony의 결혼이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의 불화설에 대해서도 “truths would be tales,/Where now half tales be truths”(II.ii.134-35)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Octavius와의 타협으로 이루어진 Antony와 Octavia의 ‘사랑이 결여된 결혼’의 의미는 로마제국의 전통적인 결혼제도 즉, 정략에 의한 결혼의 공허함을 상징하고 있다. 특히 Antony와 Cleopatra의 ‘결혼이 결여된 사랑’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결혼의 공허함은 더욱 부각되는데, Antony와 Cleopatra는 사랑을 위한 어떠한 외부적 지원과 호응을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은 그들 자신을 제외하면 모든 세력을 초월한 세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반면에 Octavius의 정치적 지원을 받고 있는 Octavia는 로마의 전쟁영웅 Coriolanus의 정숙한 아내인 Virgilia를 연상하는 “a holy, cold, and still conversation”(II.vi.119-20)의 여성이다. 따라서 Antony는 순결한 Octavia가 그에게 충실할 것이라 확신하고 그녀도 Antony가 자신에게 성실하게 대할 것이라 믿고 있다. 왜냐하면 이 결혼에는 Octavius의 최상의 정치권력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들의 결혼은 남녀간의 조건없는 순수한 사랑에 의한 결합이 아니라 너무 많은 정략과 부담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이 정치적 타협으로 결혼이 성사된다는 사실은 연인간의 사랑은 정치에 비하면 기껏해야 부차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다. Menas는 “이번 결혼에는 서로간의 사랑보다도 양 진영을 화합시키려는 정책이 더 큰 의미(the policy of that purpose made more in/the marriage than the love of the parties)”(II.vi.115-16)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번 결혼의 의미를 적절하게 대변해 주고 있다. 이 극의 극적행동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냉소적 기질의 소유자인 Enobarbus도 이러한 결혼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Antony와 Octavius의 미래의 관계를 예측한다. Octavius와 Antony의 우정의 “끈(band)”은 결과적으로 서로의 목을 죄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이다. 또한 Antony가 원하는 것은 정숙한 여인이 아니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주색을 겸비한 이집트 여왕이다. 그러므로 Antony는 정에 쏠리는 인물이니까 이집트로 귀환할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Octavia의 “한숨”은 Octavius의 마음에 “분노의 불”이 되어 Octavius와 Antony의 친목의 근원이던 끈도 불화의 원인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결혼은 “임시변통(occasion)”(II.vi.28)에 불과한 것이라고 Enobarbus는 단정한다. 이와 같이 Enobarbus는 ‘truth-teller’의 역할을 하는 *King Lear*의 Fool처럼 자기주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인정하려하지 않고 인정할 수도 없는 사실을 솔직히 대변하는 “분신(an alter ego)”의 역할을 하고 있다(Nevo. 331). 그러므로 결혼으로 Octavia를 안정시켜준 Octavius의 정치적 책략에 의한 지원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실제로는 그의 의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결혼을 파산으로 이끌게 되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정적인 Antony를 제거하기 위해 바로 이러한 명분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이다. Paul A. Cantor는 Antony와 Octavia의 결혼을 하나의 완벽한 “전통적 관계(conventional relationship)”로 규정하고, 그들의 결혼은 전통적인 정책적 방침에 따라 결정되고, 전통적인 권력에 의해 지원을 받고, 전통적인 사랑의 표현에 의해 제약받고 있다(II.iii.1-8, III.ii.43-44, 47-50)라고 설명하면서 비록 Octavia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하더라도, 그녀에게 자신의 진실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는 그들을 결속시키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분리시켜 놓고 있는 “전통적인 관습의 벽(the wall of conventions)”을 무너뜨려야 하는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한다(157-8). 만일에 Antony가 Octavia와의 결혼제안에 대한 의미를 사전에 심사숙고했다더라면 앞서 정략적 결혼의 성사를 위한 사전의 정치작업이라 할 수 있는 Octavius의 반란에 대한 비난은 고의적으로 꾸며냈다는 사실을 파악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Antony는 이미 동생과 아내의 반란이 Octavius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에게까지 대항한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조사해서 확인한 상태이므로 이번 반란에 대해서 만큼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결혼의 진의를 간파하지 못한 Antony는 Octavius의 정략 결혼이라는 정치적 책략에 의해 함정에 걸려든 순진한 군인영웅임에 틀림없다.

Antony와 Octavia의 결혼에 앞서 Octavius와 Antony와의 불신과 갈등의 분위기는 극의 서막에서 이미 조성돼 있었다. Antony는 Philo가 지적했듯이 “강철 갑옷 입은 마아즈신(plated Mars)”으로 비유된 군인영웅이지만, 지금은 사랑에 빠진 이집트 여인의 “음탕한 색정(a gipsy’s lust)”이나 식혀주는 “풀무(bellows)”나 “부채(fan)” 신세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삼두정치가로서의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완전히

무시한다. 따라서 그의 애정은 하늘과 땅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고 Antony 자신도 “Venus의 숭배자”(I.i.44-47)로 변모했음을 시인하고 있다(Miola.118). 이러한 Antony가 절박한 기분으로 이집트를 떠날 때 Shakespeare는 의도적으로 Octavius의 눈을 통해서 이들의 갈등과 불신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있다. Octavius는 앞서 Antony와 Cleopatra의 등장과는 대조적으로 분위기를 압도하는 위엄과 권위를 보여주는 로마제국의 통치자의 이미지로 등장하는데, 그의 첫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Antony라는 인물을 통해서 로마적 가치와 이집트적 가치를 대비시키고 있다.

From Alexandria

This is the news: he fishes, drinks, and wastes  
The lamps of night in revel: is not more manlike  
Than Cleopatra: nor the queen of Ptolemy  
More womanly than he: hardly gave audience, or  
Vouchsaf'd to think he had partners. You shall find there  
A man who is the abstract of all faults  
That all men follow. (I.iv.3-10)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Octavius는 Antony가 즐기고 있는 이집트에서의 쾌락과 방종에 대해 강한 경멸감을 느끼고 있다. Antony는 낚시질이나 하면서 술이나 마시고, 밤샘 잔치나 베풀어 시간 낭비를 하면서 남성다움을 상실하고 “여성다움(womanly)”으로 변모했다. 또한 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잊어버리고 모든 과오를 한 몸에 갖고있는 “촌부”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무질서하고 감각적인 Antony의 행동에 대한 금욕적이고 절제적인 Octavius의 모멸감인 동시에 공적인 임무를 태만하는 탐욕에 빠진 한 개인에 대한 해고통지와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Octavius는 성(sex)에 대한 혐오감과 평민들과의 접촉에 대해서도 완고한 귀족적이고 엘리트적인 모멸감과 경멸감까지 보인다. “토레미 왕가의 규방(the bed of Ptolemy)”으로 들어간 행동, “하룻밤의 환락(a mirth)”을 위해 하나의 왕국을 내던지는 행위, “종놈과 술잔돌리기(the turn of tipping with a slave)”하는 게임, 대낮에 “거리를 비틀거리기(reel the streets)” 술취한 행동, 땀내나는 “건달패들과 주먹질(buffet with knaves)”(I.i.16-21) 등 Octavius는 이집트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러한 Antony의 행동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즐기는 쾌락과 방종의 이집트적 가치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이다. Octavius의 이러한 지적은 이집트화 된 Antony의 쾌락적인 방탕한 행위에 대해한 자신의 개인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Antony의 공적인 직무태만에 대한 처벌에만 국한시킴으로써 개인적 행동을 자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Octavius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Octavius의 성격은 강직하고 청교도적인 절제와 금욕의 로마정신을 상징한다. 로마적 가치와 이집트적 가치는 서로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Antony가 즐기는 이집트라는 사회의 실상을 엿 볼수 있다. 다시말해서 규율이란 개념이 희박하고 나태와 쾌락을 추구하는 이집트의 감각적인 분위기는 비록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도 있지만, 쾌락과 방종의 이집트 사회는 금욕과 절제의 이상적인 로마사회를 추구하는 Octavius의 의도와는 상반된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이집트적 가치에 몰입한 Antony에 대한 Octavius의 비난과 경멸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Antony와 Octavius간에 아직까지는 서로 공통적인 로마적 가치와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Brutus를 패배시켜 로마제국을 건설하는 일에 협력했으며, 전통적인 로마군인의 명예와 저속한 시민들을 경멸하는 엘리트적인 기질을 소유하고 있고, Pompey와 해적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Miola, 129). 이러한 공통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 극의 대부분은 이들의 대립과 갈등으로 전개되는데, Antony와 Octavius의 정치권력에 대한 갈등은 Pompey의 진격소식으로 증폭된다. 일단 Pompey세력이 점점 강력해지자 Octavius는 Philippi의 전쟁영웅인 Antony를 끌어들인다. Shakespeare는 이러한 역사적 순간에 Octavius라는 인물대신에 이상적인 로마적 가치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Antony는 Octavius에 의해 주색에 빠진 탕아로 이미 판정을 받은 상태이지만, Octavius가 지금 추구하는 로마적 가치의 실체가 Antony라는 군인영웅의 과거의 이미지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컬하다.

Antony,

Leave thy lascivious wassails, When thou once  
Was beaten from Modena, where thou slew'st  
Hirtius and Pansa, consuls, at thy heel  
Did famine follow, whom thou fought'st against,  
Though daintily brought up, with patience more  
Than savages could suffer, Thou didst drink  
The stale of horses, and the gilded puddle  
Which beasts would cough at: thy palate then did deign  
The roughest berry, on the rudest hedge:

Yea, like the stag, when snow the pasture sheets,  
 The barks of trees thou browsed. On the Alps  
 It is reported thou didst eat strange flesh,  
 Which some did die to look on: and all this--  
 It wounds thine honour that I speak it now--  
 Was borne so like a soldier, that thy cheek  
 So much as lank'd not. (I.iv.55-71)

Octavius는 자신과 비교해서 Antony의 과거의 위대한 군인영웅의 이미지속에서 로마적 가치를 재현하고 있다. Antony는 호사스럽게 자랐지만 야만인 이상으로 강인하게 굶주림과 싸웠고, 말오줌을 마시고, 지저분한 울타리에 열린 맛있는 열매를 먹었고, 사슴처럼 나무껍질마저 먹었다. 또한 괴상한 날고기를 먹었고, 모든 고난을 군인영웅답게 참고 견디어냈다. 앞서 Octavius는 등장하면서 Antony를 비난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와같이 그를 칭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절제와 금욕으로 무장한 채 권력에 대한 그의 의지와 집착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자신의 비난에 대해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취한다. "Pompey/Thrives in our idleness"(I.iv.75-76)라는 대사에서의 "idleness"란 말이 Octavius와 관련해서 사용된 예는 이 장면에서 유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그만큼 나태하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한 Octavius의 부정적 반응의 표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외의 동정에 대한 Lepidus의 요구에 대해서도 "Doubt not, sir./I know it for my bond"(I.iv.83-84)라는 냉담한 반응은 그에 대한 신뢰의 부족과 지배력을 암시해 준다. 이러한 Octavius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에 가서 Lepidus의 제거를 예상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1막 4장은 정치적 삶으로 가득찬 로마사회와 Octavius를 정치권력의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있는 장면이라 하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장면에서 Antony를 로마적 가치의 화신으로 묘사한 Octavius의 의도는 이집트 세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로마의 전통의식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록 Octavius의 이러한 Antony에 대한 찬사는 사실이지만 타락한 Antony를 상상하면서 자신의 의도와는 정반대 방향을 언급한 것을 보면, 그의 상상력은 천박하고 더러운 경멸의 이미지들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Octavius는 이러한 Antony의 도움을 진실로 원하면서도 자기 정적의 이러한 정신에는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Antony는 Octavius가 경멸하고 있는 이집트적 가치의 상징으로 변모해서 더 이상 로마적 가치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Antony의 로마적 가치는 과거의 군인영웅속에만 존재하고



지금은 무질서, 쾌락, 풍요로움의 이집트적 가치에 젖어 있음을 Octavius는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로마의 현실 상황하에서 권력에 대한 Octavius의 의지는 사랑에 대한 Antony 의지와 대비되고 있다. Octavius는 권력 그 자체를 장악하기 위해 전쟁을 수단으로 이용하지만, Antony는 자신의 미덕을 Cleopatra에게 과시하기 위한 기회일 뿐이다. 따라서 Octavius의 목표가 정적과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 정적을 제거함으로써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라면, Antony는 명성과 관대함을 베풀어 Cleopatra의 사랑을 얻고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가식과 책략이 난무하는 불안한 정치대결의 장에서 Antony가 추구하는 사랑이란 권력의 힘에 의해 밀려나고 약화될 수밖에 없다. 즉, 사랑과 권력의 대결에서 권력이 승리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Octavius는 현실적인 군인정치가로 상승하겠지만 Antony는 이미 사라진 과거의 군인영웅에 불과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 로마의 현실세계는 어떠한가. A. Leggatt가 이집트와 비교해서 지적하고 있는 로마 현실의 불투명함, 즉 "neutral and unatmospheric as a committee room"(176) 이라는 로마 공화정의 삶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로마제국이 그렇게 암울하고 공허하며 삭막한 분위기는 아니다. *Julius Caesar* 나 *Coriolanus*의 로마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제국이 불투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활력이 없기 때문이다. 로마의 정치적 삶의 단면은 2막 6장의 Pompey와 삼두정치가의 협상장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장면은 또 한명의 로마의 군인영웅인 Pompey의 특성을 통해서 로마와 이집트의 대조적 가치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Pompey에 대한 이미지는 능력있고 자신감 넘치는 군인영웅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의 잘못된 판단능력은 곧바로 나타난다.

I shall do well:  
 The people love me, and the sea is mine:  
 My powers are crescent, and my auguring hope  
 Says it will come to the full. Mark Antony  
 In Egypt sits at dinner, and will make  
 No wars without doors. Caesar gets money where  
 He loses hears: Lepidus flatters both,  
 Of both is flatter'd: but he neither loves,  
 Nor either cares for him. (II.i.8-16)

이러한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Antony는 이집트에서 주색에 빠져있고, Octavius

는 돈을 모으는데 여념이 없어 신망을 잃은 상태이며, Lepidus는 두사람에게 아침이나 하지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삼두정치가들에 대한 Pompey의 판단은 곧이어 등장한 Menas의 보고, 즉 Octavius가 이미 출정했다는 사실에 의해 오판으로 판명된다. 그러나 Pompey는 Antony가 로마에 도착했다는 사실조차 부인하면서 Antony가 즐기고 있을 이집트의 세계를 로마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Pompey의 눈에 비친 이집트 역시 사치와 탐욕, 무절제와 나태함의 이미지로 가득차 있다. 그는 이집트화된 Antony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음탕한 Cleopatra로 하여금 “사랑의 매력(the charms of love)”, “아름다움(beauty)”, “호색의 힘(lust)”으로 “방탕아(libertine)” Antony를 환락의 광장에 붙들어 매놓고, 머리통에서 뜨거운 술김이 피어오르게 하고, “요리의 명수들(Epicurean cooks)”이 갖은 양념으로 그의 식욕을 돋구어 “잠자고 먹기(sleeping and feeding)”로 일관해서 “염치와 체면(honour)”도 다 팽개치고 “망각의 강에 빠진 듯(a Lethe'd dulness)” 깊은 잠에 취하게 만들도록 기원하고 있다(II.i.20-27). 앞서 Octavius의 눈에 비친 이집트와 똑같이 로마인들의 이집트에 대한 이미지는 일종의 선입관념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Antony의 로마도착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아이러니컬하게도 Pompey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로 돌아간다. Antony의 군사적 역량은 “twice the other twain”(II.i.35)인 만큼 Antony가 도착했다는 사실은 자신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증거라고 합리화 한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힘을 공개적으로 강조하면서 역사를 재조명하고 있다. 즉, 공익과 자유민주공화제의 수호라는 대의명분때문에 Brutus와 Cassius가 Caesar를 암살한 행위에 대해서 은연중에 변호한다(II.vi.10-19). 자기자신도 그러한 대의 명분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나의 고귀한 아버지에게 끼친 사악한 로마인들의 배은망덕을 매질하기 위해서(To scourge the ingratitude that despiteful Rome/Last on my noble father)”(II.vi.22-23)라는 복수의 의지까지 보인다. 이러한 Pompey의 태도를 통해서 로마역사가 순환논리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Milola, 134).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Pompey의 의도는 결과적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선상협상에서는 로마의 군인정치가들의 정치적인 기회주의적 특성이 나타나고 있지만, Antony를 제외한 군인정치가들은 정치적 의도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협상과정에 참여한 삼두정치가들 중에서도 군사적 우위를 지닌 Antony는 Pompey로부터 개인적 공감을 불러일으켜 서로의 뜻을 교감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Octavius, Lepidus, Pompey 세 사람의 관계는 순전히 정치적임을 알 수 있다. Lepidus는 Pompey에게 개인적인 논쟁을 중지시키

면서 “그런 이야기는 초미의 관심밖의 일이니까, 그것보다 우리가 보낸 제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들려주소(Be pleas'd to tell us --/For this is from the present--how you take/The offers we have sent you)”(II.vi.29-31)”라고 하자, 협상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Octavius는 간략하게 “There's the point”(II.vi.31)라고 Lepidus를 지원한다. 이와같이 핵심을 찌르는 짤막한 말은 Octavius의 특징이자 그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협상을 주도하는 상황의 이미지이다. 또한 Pompey가 협상비준에 대한 제의를 하자 “That's the next to do”(II.vi.59)라고 말한다. 이러한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Octavius는 주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비록 정치적 언급은 간략하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정치적 협상 장면을 정치적으로 조정,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Antony and Cleopatra*의 군인정치가들은 *Julius Caesar*와는 달리 정치적 갈등의 문제를 그들의 선배들처럼 무력 즉, 전쟁에 의한 해결방법이 아닌 정략적인 정치적 협상거래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음은 매우 인상적이다. 이러한 군인정치가들의 정치적 협상과 타협은 비록 무력행위라는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이 있지만, 위선과 책략에 의한 정치적 타협은 결과적으로 로마제국의 이상과 도덕적 가치의 타락을 초래한다. 이는 이후의 Octavius의 권력에의 의지와 관련한 일련의 행동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Pompey의 선상장면은 우리에게 로마의 군인정치가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Antony의 다음의 설명은 Octavius로 하여금 이집트에 대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Thus do they, sir:they take the flow o' the Nile  
 By certain scales i'the pyramid: they know,  
 By the height, the lowness, or the mean, if dearth  
 Or foison follow. The higher Nilus swells,  
 The more it promises:as it ebbs, the seedsman  
 Upon the slime and ooze scatters his grain,  
 And shortly comes to harvest. (II.vii,17-23)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Antony는 경제가 어떻게 운용되며 이집트인의 기술은 어떠한가를 설명하면서, 과학적 영농기술을 소개하고 힘든 노동을 덜어주는 자연의 비옥함으로 충만한 이집트의 이상세계를 제시한다. 이에 대한 군인정치가들의 반응을 보면, Octavius는 진지한 태도를 보이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금욕과 절제의 가치에 충실한 통치자의 면모를 읽을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Lepidus의 관심

은 이집트의 악어에 한정되어 있고, Menas는 삼두정치가를 제거하기 위해 은밀한 음모의 분위기를 유도한다(II.vii. 69-72). Pompey는 이러한 음모를 수용하여 성공하면 권력의 이득을 얻게 되겠지만 이를 거부한다. 그 이유는 “Tis not my profit that does lead mine honour:/Mine honour, it”(II.vii.75-76)이라는 대원칙 때문이다. 이러한 Pompey의 태도는 명예와 명성이라는 로마적 가치에 충실한 도덕적 인물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Martindale, 181-2).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태도는 Pompey의 진실을 표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이 손상될까 두려워한 Pompey의 정치적, 역사적 인식의 표현이다. 그 후에 Pompey는 Octavius의 책략에 말려들어 Antony의 부하에 의해 살해됐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III.v.18-19). 바로 이러한 일련의 사건과 상황을 둘러싼 로마의 군인정치가들의 시각을 통해서 로마사회의 윤리적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소중한 가치인 명예와 명성의 실체가 추악한 권력투쟁의 이면에 숨어있다는 것이다. 로마세계의 도덕적 규범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라도 그 사회를 운용, 발전시켜 나갈때 나타나는 내부의 필요악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Octavius가 Octavia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처럼, Antony를 제외한 로마의 군인정치가들은 개인적인 애정보다 로마사회와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ctavius와 Antony의 대립과 갈등은 선상향연에서 서로간의 감정의 교류를 통해서 대조적인 기질로 나타난다. 향연을 즐기도록 Octavius에게 “Be a child of the time”(II.vii.98)이라는 Antony의 요청은 극적인 아이러니이다. 왜냐하면 Octavius는 Antony에 비해서 어린 애송이지만 삶이 곧 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연을 즐기는 Antony의 의도와 달리,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향연에 참석했을 뿐이다. Octavius가 “하루에 그렇게 마시는 것보다는 나흘이라도 전혀 술을 끊는 편이 낫소(But I had rather fast from all, four days,/Than drink so much in one)”(II.vii.100-01)라고 불평하자, Antony는 “자, 우리 모두 손잡고 춤을 춥시다. 감각이 술에 흠뻑 젖어 기분 좋게 망각의 강에 빠질 때까지(Come, let’s all take hands,/Till that the conquering wine hath steep’d our sense/In soft and delicate lethe)”(II.vii.104-06)라고 응수한다. 이러한 두 라이벌간의 대화의 의미는 분명하다. Octavius는 망각의 강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정치적 삶이 전부인 현실적 정치가이고, Antony는 쾌락, 우정, 향연과 관련된 방종을 즐기는 이상적 정치가이다. 결국 Pompey와 Antony는 향연의 쾌락을 추구함으로써 서로의 교감을 나누지만, Octavius는 향연을 시간의 낭비요, 무질서요, 방종이라고 일축하고, 다만 정치적

협정의 일부로서 호의를 베푸는 일종의 전통의식의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 로마의 절제적인 선상향연이 이집트적인 쾌락의 향연으로 발전할 조짐이 보이자 Octavius는 서둘러 향연을 종결시킴으로써(II.vii.117-24), 그의 절제와 금욕의 로마적 가치가 Antony의 방종과 쾌락의 이집트적 가치를 조정,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선상향연은 로마와 이집트간의 뚜렷한 사회적인 대조를 반영하고 있다. 로마의 향연은 이집트보다 풍족하진 않지만 절제된 남성적 향연이다. 반면에 이집트의 어떤 향연도 실제 무대위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집트의 특성인 여성적임을 알 수 있다. 극중에서 등장한 이집트의 남성들인 예언자, 회계관리인, 환관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로마의 남성다운 기질을 소유하고 있지않은 점에서도 유추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집트의 향연은 못여성들이 등장하고 향연의 절차와 진행이 Pompey의 선상향연과는 달리 풍족하고 호화스런 쾌락적인 향연의 광경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삼두정치가들과 Pompey와의 대결, 협상, 그리고 선상향연의 장면에서 나타나고 있는 Octavius와 Antony간의 정치적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도와 기질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대립과 갈등이 내면적으로는 심화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이들의 애매모호한 성격의 일면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Octavius는 야심과 책략, Antony는 쾌락과 방종의 이미지를 각각 보여준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지만, 무언가 그 내면에는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분위기이다. 다시 말해서 둘다 자신들의 명예와 명성을 언급하면서도 그런 가치에 입각한 행동과 가식적이고 야심적인 행동간에는 구별이 모호하다. 어쨌든 Octavius의 권력에의 의지와 Antony의 쾌락에 대한 욕망은 서로 병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제 세계는 “턱이 두 개(a pair of chaps)”밖에 없고, 먹을 것이란 먹을 것은 입속에서 위 아래 턱이 차례로 마음대로 갈고 씹어 먹어치울 것이라고 Enobarbus는 Octavius와 Antony에 의해 전개될 미래를 비유하고 있듯이(III.v.13-5), 그들의 대결양상은 전쟁이라는 외부적인 갈등의 형태로 발전한다.

로마와 이집트의 대조적인 분위기는 전쟁전의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Lepidius를 제거하고 Antony마저 제거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로마의 상황에서 Octavia는 Antony가 이집트로 돌아간 것을 Octavius에게 알린다. Antony보다 항상 앞서가는 정치적 조정자인 Octavius는 Octavia의 청원 즉, 서로간의 화해와 협력을 걸으려는 수용하면서도 Antony에 대한 대비책이 소홀했음을 시인하고 치밀하게 전열을 재정비한다(III.vi. 78-81). 이처럼 전쟁준비를 하는 로마의 진영은 일

사분란하게 준비를 하면서도 전쟁전의 분위기치고는 표면상으로 너무나 평온하다. 반면에 이집트의 진영은 로마의 진영과는 대조적이다. 먼저 Enobarbus는 Cleopatra의 전쟁참가에 대해 그녀와 논쟁을 벌인다.

Your presence needs must puzzle Antony,  
 Take from his heart, take from his brain, from's time,  
 What should not then be spar'd. He is already  
 Traduc'd for levity, and 'tis said in Rome  
 That Photinus, and eunuch, and your maids,  
 Manage this war. (III.vii.10-15)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Cleopatra가 옆에 있으면 Antony는 머리가 어지러워서 “용기, 지략,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벌써부터 경박하다는 비난과 환관과 시녀들이 이번 전쟁을 지휘한다는 소문까지 돌고있는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Enobarbus는 Cleopatra의 전쟁참가를 만류하면서 Candidius와 함께 해상전투의 위험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집트화된 Antony는 이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Cleopatra의 결정에 굴복하여 Octavius가 해전을 감히 도전해 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전을 결심한다. 이러한 Antony의 결심의 배경에는 그의 어리석음과 전략적인 판단착오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전쟁은 자신이 원하는 장소와 방법으로 진행된다는 Octavius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Antony의 행위에 대해서 Enobarbus가 “chance and hazard”(III. vii.47)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과 같다는 지적에서도 알 수 있고, 또한 Octavius가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심지어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최후에 가서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앞서 이집트로의 귀환에 관한 예언자와의 대화에서 나타났던 Antony의 기억속에서도 알 수 있다.

Be it art or hap,  
 He hath spoken true. The very dice obey him,  
 And in our sports my better cunning faints  
 Under his chance:if we draw lots, he speeds,  
 His cocks do win the battle still of mine  
 When it is all to nought: and his quails ever  
 Beat mine, inhoop'd, at odds. (II.iii.31-7)

Antony의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Octavius와의 대결에서 항시 운명적이라

할 만큼 패배의 연속이었고, 신통력이건 우연이건 Octavius의 말이 항시 옳았다. 주사위까지 Octavius의 뜻대로 움직이고, 어떤 경기를 해도 기술은 Antony가 우수하지만 그의 운에는 굴복하고, 제비뽑기, 닭싸움, 메추라기를 농속에 넣는 게임을 해도 승산은 있지만 결국에는 Octavius가 승리한다는 Antony의 강박관념이 마음속 깊이 각인 되어 있었다. 이처럼 전쟁준비와 방법에 있어서 Octavius의 진영은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해 나가지만, Antony 진영은 논쟁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따라서 Cleopatra에 굴복한 Antony의 행동에 대해서 Candidus의 “So our leader’s led./And we are women’s men”(III.vii.69-70)라는 체념조의 말은 이번 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 이와같이 로마와 이집트간의 대조적 분위기는 단순히 효율성과 통솔능력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Octavius와 Antony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상황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Octavius의 진군속도에 당황해서 “This speed of Caesar’s/Carries beyond belief”(III.vii.74-75)라는 Candidus의 지적은 Octavius의 주도면밀한 출정에 대한 군사적 평가인 동시에,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Antony와 대조를 이루는 Octavius의 현실 판단능력과 역사적 진행의 중요성을 암시해 주고 있다.

Actium 전투의 결과로 권력의 축은 가시적으로 Antony로부터 Octavius에게로 집중한다. 전 세계의 절반을 통치하던 강인한 전쟁영웅은 하늘과 땅 사이의 좁은 공간에 ‘홀로’ 남게 된다. 그의 행운의 별들조차 “지금은 모두 천계를 떠나버렸고, 그 불빛도 지옥의 심연속으로 떨어져 버렸다(Have empty left their orbs, and shot their fires/Into the abysm of hell)”(III.xiii.146-47). 마치 Coriolanus가 로마에서 추방될 때의 “a lonely dragon”(VII.i.30)처럼 홀로 남게되는 상황이다. 반면에 Octavius는 사실상 하늘과 땅과 바다 심지어 별까지도 지배하는 명실공히 “universal landlord”(III.xiii.72)가 되었다. 이러한 불운과 불명예의 절망에 빠진 상황에서 Antony는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려고 최후의 돌파구를 찾는다. “by Jove that thunder”(III.xiii.85)에 맹세하고, Octavius에게 “일대일(sword against sword)”(III.xii.27)로 도전함으로써 과거의 실책을 회복하고 “our chronicle”(III.xiii.175)를 남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그러나 Octavius는 이러한 Antony의 개인적인 도전을 경멸하면서 일축해 버린다. Enobarbus 조차 Antony의 Octavius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Unstate his happiness”(II.xiii.30)라 이미 판단했었다. 따라서 이러한 Antony의 명예회복을 위한 착상은 그 속셈이 들여다 보이는 구실에 불과한 늙은 노인의 늪두리라고 Enobarbus는 평가하면서, 동물의 이미저리를 사용하여 “죽어가는 늙은 lion”과 “타조를 쫓아대는 dove”(III.xiii.95,197)와 같은 나약

한 존재로 전락했다고 비유한다.

결국 Antony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확신한 Octavius는 절제된 이성과 감정을 조정, 통제하면서 Antony와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The time of universal peace”,(IV.vi.5)를 선포한다. 따라서 감정과 충동에 지배되는 Antony보다는 이성으로 절제하는 Octavius가 로마제국의 현실적인 지배자가 된다는 사실은 로마 현실의 정치와 사회의 구조속에서 보면 당연한 귀결이다. 또한 Octavius를 통해서 Pax-Romana와 Pax-Christina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기독교적 해석까지 확대해 볼 수 있다(Fichter, 99).

Antony의 죽음이 있고난 뒤에 전개되는 5막은 Octavius와 Cleopatra 즉, 로마와 이집트의 최종적인 대결양상이지만 죽음으로써 Cleopatra와 합일된 Antony와의 갈등구조의 연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Octavius에게 Antony의 죽음은 그에게 하나의 커다란 충격이지만, 그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자신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그는 공사다망한 공인의 이미지에서 역사가로 변신해서 Antony의 죽음으로 초래된 현재의 사태를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는 냉혹한 정치가의 자세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다.

The breaking of so great a thing should make  
A greater crack, The round world  
Should have shook lions into civil streets,  
And citizens to their dens, The death of Antony  
Is not a single doom, in the name lay  
A moiety of the world. (V.i.14-19)

이러한 대사에서 Octavius가 파악하고 있듯이, 위대한 군인영웅 Antony가 죽을 때는 거대한 폭음과 진동소리에 놀라 사자가 거리로 몰려나오고 시민들이 사자굴로 들어가는 대혼란이 일어나야 한다. 왜냐하면 Antony의 죽음은 한 개인의 종말이 아닌 세계의 반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Octavius의 역사인식은 단순하거나 부정직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입장을 스스로 깨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가의 의도라 할 수 있다. Shakespeare는 이러한 역사적 진행과정에서 등장인물들로 하여금 스스로 특별한 위치와 상황을 인식하는 사건의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Octavius가 흘린 눈물의 의미는 Antony에 대한 연민의 정의 표시가 아니라 그의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다. “a spacious mirror”(V.i.34) 앞에 서게 되면 자기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Octavius는 Antony에 대한 찬사를 보내지만 이는 공식적인 것일 뿐, *Julius Caesar*에서 Brutus의 죽음에 대한 Antony의 조사를 연상케하는 자발적인 감정이 없어 보인다.

O Antony,

I have follow'd thee to this, but we do launch  
Diseases in our bodies. I must perforce  
Have shown to thee such a declining day,  
Or look on thine: we could not stall together,  
In the whole world. But yet let me lament  
With tears as sovereign as the blood of hearts,  
That thou my brother, my competitor,  
In top of all design: my mate in empire,  
Friend and companion in the front of war,  
The arm of mine own body, and the heart  
Where mine his thoughts did kindle:--that our stars,  
Unreconcilable, should divide  
Our equalness to this. ...

(V.i.35-48)

Octavius는 먼저 Antony를 질병에 비유하고, 질병은 반드시 칼로 도려내어 치유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Antony 제거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나서 Antony와 자신은 한 세계에 공존할 수 없는 입장인 만큼 반드시 어느 한 쪽이 사라져야 할 운명임을 밝히면서 심장의 피만큼이나 고귀한 눈물을 흘린다. 또한 자신의 형제요 경쟁자요 동료이자 동반자이지만, Antony는 자기 신체의 팔과 마음에 불을 질러 주던 심장으로서 서로 조화될 수 없는 운명의 별이 대등함을 허용치 않았다고 Antony의 죽음의 의미를 합리화한다. 다시말하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의 라이벌인 Antony를 필연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당위성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Octavius의 역사에 대한 인식은 결말에 이르러 강력하게 나타난다. Seleucus와의 재산문제에서 나타난 Cleopatra의 기만행위와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Cleopatra의 생포계획이 무산된 상황에 대해서도 조금도 마음의 동요를 보이지 않고, 이들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간단명료하게 "And then to Rome"(V.ii.363) 이라고 지시한다. 이러한 명령은 생동감 넘치는 활력과 움직임 즉,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불러 일으키며, Antony와 Cleopatra를 상상력의 세계에 머물러 있게 한다. 이 네마디 말에는 강렬한 비극적

인식이 있지만 4대 비극의 결말과는 다른 극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상력의 일부는 Octavius와 로마세계에 빠져있지만, 전개되고 있는 역사적 진행과정 속에서 Antony와 Cleopatra는 역사적 판단을 초월하는 비극적 주인공으로 승화되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 III.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Antony and Cleopatra*는 고대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로마대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의 군인정치가들은 로마세계가 그들의 끝없는 지배욕을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협소한 것처럼 서로를 공격하고 정복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권력을 획득하려는 의지는 그 한계를 설정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이어서, 비록 로마가 대제국으로 발전했지만 군인정치가들의 권력의 야망은 그만큼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로마의 정치적인 불안정한 상황에서 Octavius Caesar의 권력에의 의지는 대제국으로 팽창한 로마세계를 일인통치하겠다는 역사적 사명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질서와 규율, 금욕과 절제의 제국시대의 로마적 가치를 통해서 이집트적 가치를 추구하는 Antony를 굴복시키고 Cleopatra까지 지배하려고 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적 군인정치가인 Octavius와 쾌락과 방종에 몰입한 과거의 군인영웅인 Antony간의 대립과 갈등은 외형상 Octavius의 승리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Shakespeare는 이러한 군인정치가들간의 갈등과 대결에서 일어나는 비극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대제국으로 발전한 로마세계에서 추구해야 할 진정한 로마적 가치는 이성과 감정, 권력과 사랑, 절제와 쾌락, 미덕과 악덕, 로마사회와 이집트사회등 다양한 가치와 이상의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한 화합을 이룸으로써 구현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Works Cited

- Adeleman, Janet, *The Common Liar: An Essay on Antony and Cleopatra*, New Heaven: Yale U.P. 1973.
- Bradley, A.C., "Shakespeare's Antony and Cleopatra", in *Antony and Cleopatra. Casebook Series*, Ed. John R. Brown, London: Macmillan, 1968.
- Cantor, Paul A., *Shakespeare's Rome: Public and Empire*, Itaca: Cornell U.P., 1976.
- Fitcher, Andrew, "Antony and Cleopatra: The Time of Universal Peace", *Shakespeare Survey*, 33(1980).
- Ide, Richard S., *Possessed with Greatness: The Heroic Tragedies of Chapman and Shakespeare*, Chapel & Hill: The U. of North Carolina, 1980.
- Knight, G. Wilson, *The Imperial Theme: Further Interpretations of Shakespeare's Tragedies Including the Roman Plays.*, London: Methuen, 1979.
- Leggatt, Alexander, *Shakespeare's Political Rome: The History Play and the Roman Plays*, London: Routledge, 1988.
- Markels, Julian, *The Pillar of the World*, Ohio: Ohio State U.P., 1968
- Martindale, Charles and Michaelle, *Shakespeare and the Uses of Antiquity: An Introductory Essay*, London: Routledge, 1990.
- Milola, Robert S., *Shakespeare's Rome*, London: Cambridge U.P., 1983.
- Nevo, Ruth, *Tragic Form in Shakespeare*, New Jersey: Princeton U.P., 1972.

Abstract

An Aspect of the Contrast and Conflict  
in *Antony and Cleopatra*

Il-Sang Song

In *Antony and Cleopatra*, Rome has moved physically from a city-state to Empire. Roman values are used by individuals for their own ends, instead of constituting essential principles of living life. Octavius's personal temperament is sympathetic to the Roman ideal of austerity. He is puritanical in his outlook and suffers no tension between his political and private lives. Also, he is a symbol of the professional political man. For politics is a kind of life to him, and then he does not devote himself to public service. Instead he makes himself good control of the Roman Empire in order to fulfil his personal ambition. But Antony implicitly rejects all virtues that Rome stands for, allowing himself to be seduced by the Egyptian queen, Cleopatra. Cleopatra goes along with a whole set of beliefs which are antithetical to Roman values. By embracing a new culture of the Egyptian values, Antony relinquishes his martial qualities and pursues the nature of a lover-hero. The price paid by the Egyptianized Antony turns to be the total loss of the Roman qualities of vigour and efficiency.